

깨어남의 심리학 (2부)

| 프랭클린 메렐 울프 | 진선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의식(理)과 생명력(氣)에 대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2부)

상위 의식과 마음

신비주의 문헌에서는 마음(Mind)의 활동이 상위 의식 실현에 장애가 되지만, 상위 정동(情動)의 활동은 상위 의식 실현에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정신적 활동을 이렇게 보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먼저, 순수한 활동은 마치 커다란 소음이 침묵의 목소리가 내는 정묘한 소리를 덮어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그 다음으로, 마음의 활동은 이기주의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원인이며, 이기주의는 분리감의 토대가 된다. 논리적으로 보나 나 자신의 경험으로 보나 모두, 객관적 의미를 가진 행동과 이기주의가 장애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그러나 장애물은 직접 맞닥뜨려 해결함으로써 극복할 수도 있지만, 장애를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활동을 멈추고 완벽히 침묵하는 것과 이기주의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이 인식(Recognition)에서 절대적인 필수 사항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식은 결코 완전한 무아지경에서 성취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식을 통해 얻은 가치는 절대로 개인의식 속으로 하강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전반부에 기록한 바와 같이, 8월 변화의 시기에 마음과 감각이 활발하게 움직였으며, 나는 자아를 의식하는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이기주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적이며 감각적 의식은 근본적으로 가라앉았고, 보다 우주적인 의식이 우세한 위치를 차지했다. 게다가, 9월 8일 저녁 더욱 큰 펼쳐짐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은 매우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이때 상위 에너지 수준이 너무 커서 그 어떤 장애가 생겨나도 쉽게 치워버릴

수 있었다. 실제로, 마음이 이처럼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면 주객(主客)의 분리 의식이 목격자로 남아있거나, 나를 객관적으로 기능하는 존재로 다시 되돌려 놓았으리라 의심할 만했다.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설명할 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다.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예리한 내적 통찰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일 때도 있다. 과장된 표현이 동양의 주요 결합 중 하나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며, 무수한 신비주의자 역시 동양에서 발견된다. 게다가 논리적이거나 사실에 입각한 정확함보다 신비주의자의 심리적 요인이 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혼란 전체를 설명해주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신비주의에서 사용되는 “마음”이라는 용어는, 서구 철학이나 가장 권위 있는 용어 사용에서 의미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마음(mind)”을 “마나스(manās, 편집자 주: 자아라고 믿고 집착하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의식의 측면)”로 바꾸면 신비주의자의 말은 훨씬 더 정확해진다. “마나스”는 보통 “마음”으로 번역되는데,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가 영어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의 원래 의미 또는 어원적 의미가 어떤 것이든, 오늘날 가장 적절하고 권위 있는 방식으로 “마음”을 정의하면, 인도 철학자와 신비주의자가 “마나스”라는 단어로 의미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이런 구분이 가능하지 않다면 혼동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혼동 때문에 나는 여러 해 동안 쓸모없는 오해를 해왔다. 내가 읽은 글이 내가 직관적으로 느낀 점과 충돌했고, 나중에야 그런 혼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유능한 신비주의 철학자 때문이 아니라, 번역자와 서구에서 신비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혼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보다 심오하고 완전한 동양철학에서 “마나스”를 하위 마나스와 상위 마나스, 둘로 나눈다는 것이다. 하위 마나스는 “실재의 파괴자”로 불리며 참 지식에 도달하려는 사람은 이 마나스를 정복해야 한다. 하위 마나스는 욕망과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감각 기관의 우두머리다. 감각의 “라자(rajā, 역주: 왕, 수장)”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하위 마나스를 정복하는 것은 “감각의 라자를 통해서 감각을 정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각은 객관적 경험의 토대가 되며, 따라서 객관적 대상을 욕망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에는, 또 그로 인해 전체 객관적 우주가 뿌리박고 있는 순수 주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위 마나스를 정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위 마나스라는 단어가 부분적으로 서구의 “Mind”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사용되고 있다면, 실제로 “마음”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센츄리 디క్ష너리(Century Dictionary)” 같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마음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느끼고 의도하고 생각하는 것, 의식적 주체, 자아, 영혼(That which feels, wills and thinks; the conscious subject; the ego; the soul)”, 이런 정의에 의하면 마음은 “마나스”보다 진정한 의미의 “아트만(Atman)”이나 “I AM”에 가까운 것이다. 여기서 “이기주의”가 마나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 제외한다면 마나스가 하위 마나스인지 상위 마나스인지는 관계가 없다. 또 다음과 같은 의미도 있다: “지적 능력 또는 인지 능력, 영혼의 일부, 감정, 자유의지와 구분됨; 지성(The intellect, or cognitive faculty or part of the soul, as distinguished from feeling and volition; intelligence)”, 이 같은 마음의 정의는 부분적으로 “चित(Chit-순수의식)”에 가까우며 상위 마나스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하위 마나스의 본질적 양상인

욕망과의 연관성은 포함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마음은 “의식의 장, 대상, 사고, 견해”를 의미한다. 이런 정의는 의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동양 철학에서 이런 영역을 포함하는 용어로는 “니르바나(Nirvana)”, “윤회(Samsara)”, “의심(Samshaya)”, “견해(Mata)” 등이 있다. “견해”를 의미하는 마타 하나만으로도 하위 마나스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욕망과 감각이 부분적으로 ‘견해’를 구성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마음을 철학적으로 사용할 때에도 “이성(Reason)”, “오성(Understanding)”, “통찰력(Discernment)”, “판별력(Discrimination)”, 많은 부분의 “직관(Intuition)” 같은 “마음”의 특징이 포함된다. “마음”이 철학적 차원에서 “마나스”에 매우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까지 살펴본 마음의 정의에 의하면 마나스, 특히 하위 마나스를 마음으로 번역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감각(sensation)”이나 “욕망(desire)”을 “마나스”로 번역하는 것이 정말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둘은 의미상 하위 마나스와 상당히 가깝다.

넓은 의미에서, “순수이성비판”은 인간 마음의 능력과 기능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하위 마나스와 감각에 동등하게 들어있는 수용능력의 기능과 형태를 다루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오성의 자발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여기에는 “아트만(Atman)”, “보디(Buddhi)”, “마나스(Manas)” 등이 가리키는 영역이 포함되는데, 이때 마나스는 상위 차원의 마나스를 뜻한다. 칸트의 “지성”은 상카라(Shankara, 역주: 인도 베단타 학파의 철학자)의 “보디”와 많은 부분에서 중복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칸트의 용어 서구의 어떤 사상가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연구 초기에 마음을 “하위 마나

스”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깨달음을 위해 정말 중요한 ‘영혼의 능력’을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서양에서 사용하는 “마음”이라는 단어에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마음”을 깨뜨리거나 억제해야 한다는 신비주의자의 말에 서양사상에서 사용하는 “마음”의 의미를 부여하면, 영혼을 파괴하고 억눌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떤 신비주의자가 영어를 잘 몰라서 마음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영혼을 억눌러야 한다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 신비주의자는 없다.

이번 논의를 통해 인식의 근본적 의미를 전달하고, 인식에 유리한 요인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지금까지 이 글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는 독자라면, 전체적인 의미에서 “인식(Recognition)”이 석가모니의 “깨달음”, 상카라의 “해방”, 예수의 “천국”과 같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목표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가능한 한 최고의 정확성을 가지고, 인간의 자각을 감각, 정동, 인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감각”은 감각 자체, 지각, 수용 같은 전체 수용 영역을 포함한다. “정동”은 사랑, 신뢰, 욕망, 신념, 기쁨 같은 특징은 물론,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정서적 특징 모두를 포함한다. “인지”는 순수 지성 또는 사고, 분별력, 이성 등을 포함한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순수 인지로는 이기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없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수 인지가 욕망, 그리고 다른 단계의 정동, 감각과 결합되어야 한다. 실제로 일반 대중에게는 인지가 이기주의와 결합되어 있지만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순수 수학의 인지적 활동에서 상위 차원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활동에서 욕망은 전적으로 진리와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진리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견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 글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는 독자라면,
전체적인 의미에서 “인식(Recognition)”이 석가모니의 “깨달음”,
상카라의 “해방”, 예수의 “천국”과 같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유형의 인지(Cognition) 활동은 인식(Recognition)에 대한 장애가 절대로 아니며, 나의 경험에 의하면 인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마음”이 인지 활동을 의미한다면 인식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지 활동이 상위 차원의 무심상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사랑, 연민, 신뢰 같은 상위 정동 또한 인식에 매우 강력한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깊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사실상 모든 신비주의자가 그 점에 동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잘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 연민, 신뢰 같은 상위 정동은 지복으로 통하는 길이며, 신성실현을 이룬 사람들이 가장 폭넓게 이해하고 가장 많이 따르는 길이다.

순수 인지를 통해서 순수의식(Chit)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는 상위 정동과 순수 인지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 당연히 이런 과정은 가장 종합적이다. 그러나 정동과 인지 사이의 균형이 반드시 완벽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한 사람이 지성에 도달할 때 정동 또는 인지 중 하나가 더욱 발달된다. 그러나 일단 상위 의식에 발을 디디게 되면 균형을 잡게 되며, 마침내 크기가 같은 두 개의 큰 날개를 가진 “위대한 새”로 상징되는 사람이 된다. 양 날개는 연민과 지성이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심리학적 유형에 대한 최신 연구 작업을 상당히 많이 공부했으며, 다음 연구를 위한 중요한 성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여기에 다음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 심리학적으로 생각을 피하는 유형인 사람에게 생각의 힘은 그 사람이 가진 주요 기능에 의해 유도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것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생각은 실재를 파괴하는 것이거나 사악한 것이다. 이 설명으로 일부 신비주의에서 비판하는 마음에 대해 더욱 명확해진다. 그런 비판은 그들에게 익숙한 사고 유형에서 보면 당연히 타당하지만, 특정 심리학적 유형을 가진 사람의 사고에 불과한 것을 보편화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사고가 잘 발달된 유형의 사람은 완전히 상이한 사고 특징을 보이는데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다. 억압된 기능이 자유롭게 활동할 경우, 그런 사람도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사람이 된다.

개념과 지각

지각과 개념 중에서 실재에 더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위로는 플라톤 시대부터 아래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철학 유파를 나누었던 매우 오래된 질문을 보다 단순하게 만든 것이다. 심리학적 분석이 연구 분야로 인정받아 발전하기 전까지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보편자와 개별자 중에 어떤 것이 더 실재에 가까운가?” 그러나 기본 쟁점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분명히, 지각은 개체 또는 개별자를 구성하는 반면, 개념은 어느 정도 일반화된 것이거나 보편적인 것이다. 형식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서양 철학에서 적어도 이 질문이 불러일으킨 쟁점을 해결하지 않고

나타난 관점은 하나도 없다. 플라톤 시대에, 한편으로는 플라톤과 데모크리토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 논쟁이 있었으며, 중세에는 개념론자와 명목론자로 갈라졌다. 개념론자는 보편성이 실재이며, 사물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명목론자는 보편성 또는 더욱 정확하게 말해서 일반화는 단순히 개별 존재 또는 특정 존재를 추상화한 것에 불과하며 개별 존재만이 유일한 실재라고 보았다. 근대가 시작되면서 합리론자와 경험론자로 갈라지게 된다. 합리론자는 수학을 구성하는 것 같은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개체 속에 주요 실재가 들어있다고 보는 반면, 경험론자는 감각을 통해 얻은 정보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한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 두 가지 사유를 결합하는 방법을 발견했지만, 또 다시 분리가 일어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타나게 된다. “가장 우선하며 가장 실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식에서 선형적 요소와 후험적 요소는 무엇인가?” 칸트가 가장 많이 영향을 준 이후, 사유의 흐름은 분명히 선형적 요소를 우선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으며, 헤겔의 절대적 관념론에서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헤겔 학파와 대조적으로, 오늘날, 경험적 유용성이 어떤 의미에서 진리와 실재의 표지라고 강조하는 실용주의자가 나타났다. 이런 분리는 “주지주의(Intellectualism) 대 생기론(Vitalism)으로 대비된다. 여기서 질문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가장 우선하는 것은 의식(Consciousness)인가, 아니면 생명(Life)인가?” 마지막으로 슈펜글러(Spengler)는 “상모성(相貌性)”과 “체계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 문제에 새로운 형태를 부여했다. 상모성은 자각의 양상, 또는 근원적 생명과 시간에 기반을 둔 살아있는 과정이다. 체계성은 개념적 구성물으로써 공간 차원에서 실재를 구성한다. 슈펜글러는 자신이 상모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체계성에 근거한 다른

기질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질문은 다음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1) 상모성 또는 체계성에서 어떤 것이 본질적이며 우선하는가? (2) 시간 또는 공간 중 우선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던 질문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분석은 발생론적 또는 논리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어떤 계열의 접근 방식인가에 따라서 결론을 거의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시간 관점에서 보면 보편자에 대한 인지는 경험 이후에 나타난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실재며 근원적인 것이라면, 지각과 개별자가 개념과 보편자보다 선행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공간과 수가 시간에 우선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가능하며, 이것은 시간차원을 본질적으로 공간의 속성으로 간주하는 사차원적 다양체로 자연을 환원하는 현대 물리학자의 입장이다. 그는 물리적 실재의 최종 상태를 미분적 평형상태 집단, 다른 말로 하면 수차원의 관계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보다 철학적인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발생론적 관점이 발달하게 된 것은 단지 선재론(pre-existence)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험은 잠들어있는 지식을 깨우는 자극이나 촉매가 될 뿐, 그 자체가 지식의 근원은 아니다.

두 사유 경향 사이의 갈등은 철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두 가지 흐름 모두 오래 전부터 확고한 것이었다. 그러나 두 가지 형태의 여러 학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더욱 큰 이해와 심오한 인식이 가능했으며, 이들이 없었다면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하나의 학파에서 다른 학파로 전향한 사람이 있다면 일단 그는 철학적으로 자기 의식적이 된 것이다. 하나의 학파의 논거를 가지고


반대 학파의 지지자를 근본적으로 설득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논거 중 어떤 것도 철학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깊은 통찰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찰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필연적으로 시스템의 기본 원칙이 통찰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나 두 가지 인식 유형에서 서로 다른 시스템의 개입으로 인한 갈등은 상호간 자기의식의 성장으로 이끈다.

이 같은 기본적인 구분이 철학에 들어있는 것처럼, 철학과 신비주의를 대비시킬 때 그런 구분이 더욱 넓은 영역에 나타난다. 철학적 신비주의 또는 신비주의적 철학 같은 학문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비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전혀 철학적이 아니다. 신비주의자는 분명히 체계성 개념보다 지각 또는 상모성과 가까운 것에서 실재를 발견한다. 시, 상징, “살아가기” 같은 것이 신비주의자가 사용하는 특징적 표현이다. 반대로 모든 철학자는 학파를 막론하고 개념,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 관념을 가지고 작업한다. 그러나 상위 차원에서는 철학자와 신비주의자 모두 상위 의식으로 깨어난다. 이런 구분은 한편으로는 석가모니와 샹카라, 다른 한편으로는 위대한 페르시아 신비주의자를 대조해 봄으로써 명확하게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이런 구분은 일반적인 주객 의식과 관련된 구분보다 더 근본적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경험을 넘어서서 확장된다. 이런 구분에 매우 근본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분명하다.

또 이런 구분은 에로스(Eros)와 로고스(Logos)라는 서로 보완적이면서 상반된 그리스의 개념과, 이 둘을 보다 현대적으로 표현한 사랑과 지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비학에서 이런 구분은, 서로 보완적이기는 하지만 대조되는 점을 보여주는 보디(Buddhi)와 마나스(Manas), 혹은 아난다(Ananda-지복)와 칫(Chit-순수의식) 같은 한

쌍의 용어로 표현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비를 보여주는 위의 두 쌍의 용어는 다시 아트만과 사트(Sat)라는 더 근원적인 실재의 양상으로 표상된다. 궁극적 실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양상 중 아트만이나 사트, 또는 둘을 결합한 매개체가 필요하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완벽하게 아트만과 사트의 균형을 성취한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본다면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 고타마 붓다라고 알려진 사람이 그런 완벽한 균형을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다른 누구보다도 가깝게 접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상카라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철학적인 것인 반면, 예수의 말은 주로 신비주의적이다. 그러나 상카라의 말에도 부수적이지만 신비주의적 요소가 들어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에게도 부차적으로 철학적 요소가 들어있다. 붓다, 상카라, 예수, 세 사람을 합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균형을 성취한 것처럼 보인다. 이 세 사람을 합해서 하나의 실재로 간주한다면 어느 정도 정확한 역사적 기록의 한계 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인 정신적 표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념과 지각 중에서 어떤 것이 선행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은 제3의 지식이 ‘존재한다’는 인식(Recognition)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으며, 그 지식을 “동일시를 통한 지식”이라고 명명했다. 제3의 지식은 개념적이지도 지각적이지도 않은 것이어서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경험될 수 없다. 깨어남을 통해, 인간은 자신을 그 지식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 지식이 개념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지각에 더 가까운지와 같은 질문이 일어나는 것은 깨어남을 얻은 사람이 제3의 지식과 주객 의식을 연결시키려고 할 때뿐이다. 내가 보기에 이 지식은 개념에 더 가까워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모성이나

신비적 형태로 그런 지식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객관적 또는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동일시를 통한 지식이 지각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실제로 개념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무채색의 색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표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가장 완벽한 표현은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왜곡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표현을 절제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내는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 선택하게 되는데, 모든 표현은 단지 말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THAT)을 반영할 뿐이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에 도달하는 길이 되어 도움을 주는데, 어떤 표현이 특정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기질의 사람에게는 다른 형태의 표현이 필요하다. (끝) 

- 이 글은 《Franklin Merrell Wolff's Experience and Philosophy》에서 발췌했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프랭클린 메렐-울프 Franklin Merrell Wolff's (1887-1985) | 미국 신비주의 철학자. 스탠포드와 하버드에서 철학과 수학을 공부한 뒤 인간 의식의 경계를 초월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여러 신비주의적 가르침을 접한 후 즈나나 요가(jnana yoga)의 길을 걸었고, 힌두교 철학에서 아드바이타 베단타(Advaita Vedanta) 학파의 창시자인 상카라(Shankara)의 글을 탐구했다. 1936년 경험한 영적 해방과 깨달음은 울프의 초월 철학의 기초가 되었다.

저서로는 《Pathways Through to Space》, 《The Philosophy of Consciousness without an Object》(이 두 권은 합쳐져서 후에 《Franklin Merrell Wolff's Experience and Philosophy》로 재발행되었다), 《Transformations in Consciousness: The Metaphysics and Epistemology》이 있다.

역자 | 진선 | 지금여기 번역위원